

“윤영철마저...” KIA 선발진 ‘어쩌나’



지난 1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SSG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한 윤영철이 2회마운드를 내려오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요추 염증’ 1군 엔트리 제외 잇따른 부상 악재 ‘노심초사’ ‘대안에 대안’...경기 운용 고심



선발투수 윤영철의 전력 이탈로 KIA 마운드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KIA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윤영철의 부상 부위를 지정병원인 선한 병원에서 체크한 결과 요추 염증으로 파악됐다”며 “15일 서울로 이동해 더블 체크로 정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영철이 이날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고, 대신 김승현을 1군으로 올렸다”고 덧붙였다. 윤영철은 전날 SSG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 2회까지 무실점 투구를 펼치다 허리 통증을 느껴 3회를 앞두고 임기영으로 교체됐다. 올 시즌 16경기에 등판해 7승 4패, 평균자책점 4.30을 기록한 윤영철은 KIA 마운드의 5선발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윤영철의 이탈로 KIA는 선발 투수진에서 또 다시 부상공백이 생기며 팀 전력 약화가 불가피해졌다. KIA는 크로우와 이의리가 전반기에 빠진 데 이어 후반기 시작과 동시에 윤영철마저 자리를 비우면

서 3명의 주전투수를 잃게 된 셈이다. 그 동안 캠 알드레드와 황동하가 마운드의 구멍을 나를 최소화했지만, 윤영철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다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선발 투수진의 공백은 불펜 운영과도 맞물린다. 선발 투수가 많은 이닝을 던져주지 못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불펜이 부담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SSG전 경기만 봐도 선발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케했다. 3회 윤영철이 빠지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한 KIA는 급하게 임기영을 투입했다. 몸이 덜 풀린 임기영은 잇따라 홈런 2개를 맞고 3실점하며, 경기 초반 분위기를 내줬다. 어렵사리 KIA는 4-7로 뒤진 6회에 소크라테스의 만루홈런과 나성범의 희생플라이로 9-7로 뒤집었지만, 결국 경기 결과는 9-15 대패였다. 윤영철의 갑작스런 강판으로 조기 가동된 불펜마저 난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선발의 구멍이 결국 좋지 않은 경기 결과로 이어져 KIA로선 무척이나 아쉬운 부분이다. ‘클로저’ 정해영이 부상에서 아직 복귀를 못하고 있고, 최지민도 2군으로 내려가 재정비 시간을 갖고 있는 와중에 부상 악재가 터지면서 KIA의 마운드 운영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주홍철 기자



KIA, 삼성 3연전 ‘달빛시리즈’

전상현·류지혁 합동사인회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16일부터 18일까지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의 3연전을 ‘달빛시리즈’로 치른다. ‘달빛시리즈’를 맞아 3연전의 첫날인 16일 경기 전 KIA 타이거즈 투수 전상현과 삼성 라이온즈 내야수 류지혁의 합동 사인회가 열린다. 경기 중에는 양 팀 치어리더의 합동 공연과 합동 전광판이 운영돼 팬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챔피언스 필드에서 빛이 담긴 직관 인증샷을 개인 SNS에 #달빛시리즈 #KIA타이거즈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한 게시물에 추첨해 기념 외편을 증정한다. 이날 경기의 시구는 삼성 라이온즈의 마스코트 ‘블레오’가, 시타는 광주 문화관광 캐릭터인 ‘오매나’가 한다. 달빛시리즈가 개최되는 3연전 동안 특별 디자인 티켓이 발권될 예정이다. 한편 팬 사인회 참석 등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단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홍철 기자



지난해 열린 군장병 초청 행사 모습. (KIA 타이거즈 제공)

17일 삼성戰 군장병 2천명 초청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오는 1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홈경기에 광주 전남 지역 군 장병 2천명을 초청해 경기 관람과 간식을 지원한다. KIA는 2022년부터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시작한 군 장병 초청 행사를 올해에도 시행하며 3년째 뜻 깊은 행사를 이어가게 되었다. 이날 경기에 초청하는 장병은 제31보병사단과 제3함대사령부, 제1전투비행단 등 광주 전남 지역 영토와 영해, 영공 방위의 주역들이다. 군 장병 초청 행사와 더불어 군인 가족을 초청해 뜻 깊은 시구 행사도 마련된다. 앞서 애국가는 제31보병사단 부근대 군악병이 부른다. 한편, 경기 전에는 제31보병사단 군악대의 특별 공연이 펼쳐져 타이거즈의 승리를 기원하는 응원가와 군가 메들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주홍철 기자

김민재 ‘백두장사’ 차민수 ‘한라장사’

보은장사씨름대회

김민재 (영암군민속씨름단)가 장사씨름대회에서 백두급 (140kg 이하)을 제패했다. 김민재는 지난 13일 충북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위드스퀘어 2024 민속씨름 보은장사씨름대회 백두장사 결정전 (5판3승제)에서 김보현 (수원특례시청)을 3-2로 꺾고 황소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16강에서 윤희준 (문경시청)을 2-1로, 8강에서 임진원 (의성군청)을 2-0으로 연파한 김민재는 준결승전에서 오정무 (문경시청)를 2-0으로 누르고 장사결정전에 올랐다. 김민재는 김보현을 상대로 첫 판에서 들배지기를 성공해 기선을 제압했다. 오금당기기와 되치기를 내리 허용해 역전당한 김민재는 네 번째 판에서 다시 한번 들배지기로 균형을 맞췄다. 마지막 판에서 김민재는 잡채기로

김보현을 쓰러뜨리고 정상에 올랐다. 전날 열린 한라장사 (105kg 이하) 결정전 (5판3승제)에서는 차민수 (영암군민속씨름단)가 박민교 (용인특례시청)를 3-2로 꺾고 황소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16강에서 김민우 (수원특례시청)를 2-1로, 8강에서 남원택 (장원특례시청)을 2-0으로 제압한 차민수는 준결승에서 오창록 (MG새마을금고씨름단)을 2-1로 꺾고 장사결정전에 올랐다. 차민수는 지난해 대회 한라장사 박민교를 상대로 첫판에서 비디오 판독을 통한 되치기 특징이 인정돼 기선을 제압했다. 두 번째 판에서는 돌림배지기를 성공해 도망갔다. 세 번째 판과 네 번째 판에서는 상대에 뒷걸이와 들배지기를 허용했으나 마지막 판에서 발다리로 박민교를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연합뉴스



2024 민속씨름 보은장사씨름대회에서 백두장사에 등극한 김민재(사진 위)와 한라장사에 오른 차민수가 황소트로피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씨름협회 제공>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장애인체전 실무자 회의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제44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경기단체 1차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오는 10월 25-30일 경남 일원에서 열리는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31개 전 종목 63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경기 및 참가 관련 일반 사항과 종목별 종합특점 분석비교, 참가요강, 강화훈련비 지원 계획(안) 등이 논의됐다. 지난해 전남에서 열린 제43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 3위를 달성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골볼, 배구, 론볼 직장은 동경기부와 우수선수, 기업연계 취업선수가 대거 포함된 배드민턴, 육상, 역도, 사격, 사이클, 탁구 종목의 선전을 기대하며 올해 장애인체전에서 한 자릿수 수성에 나선다. 김은래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종목-경기단체가 지역활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제21회 태백산기 전국종합핸드볼대회 여자초등부 준우승을 차지한 무안초 여자핸드볼팀.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무안초 女핸드볼팀, 태백산기 준우승

김지인 우수선수상 수상

무안초 여자핸드볼팀이 제21회 태백산기 전국종합핸드볼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무안초는 14일 태백시 세연중 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초등부 결승에서 인천구월초를 18대21로 패했다.

김지인과 김연재의 활약을 앞세워 전반전을 8-4로 앞서나간 무안초는 후반전 인천구월초의 뒷심에 밀리며 10-17로 무너지며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다. 무안초는 조별리그에서 재송초 (23대8), 삼보초 (19대12)를 꺾고 2승으로 준결승에 직면했다.

준결승전에서 조2위로 토너먼트를 통과한 삼보초를 다시 만나 김지인·조채연의 득점과 서민희 골키퍼의 11세 이브 맹활약으로 18대9로 승리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한편, 결승전에서 양팀 최다인 10득점을 기록한 김지인은 대회 우수선수에 선정됐다. /박희중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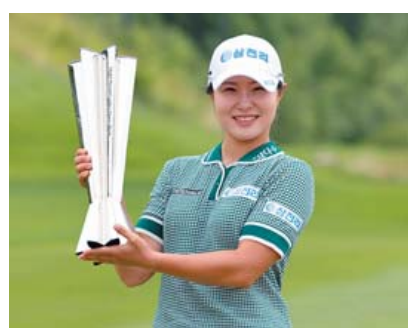
광산구, 광주시 자치구 최초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 상해보험 지원

광산구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에 발맞추고 나섰다. 광산구장애인체육회는 14일 “광산구 2차 추가경정 예산으로 8백만원을 확보해 광주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전 종목에 대한 상해보험을 오는 22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산구장애인체육회는 현재 11명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광산구 장애인단체 및 기관등에 직접 찾아가서 19종목 140개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시즌 첫 승’ 고지우, 전반기 화려한 피날레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우승

고지우 (21)가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 투어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총상금 10억원) 정상에 올랐다. 고지우는 14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 컨트리클럽 (파72)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3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 합계 19언더파 269타를 친 고지우는 2위 전예성을 두 타 차로 누르고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올해 16개 대회에서 톱 10세 차례로 다소 추후했던 고지우는 시즌 전반기를 우승으로 기분 좋게 마무리했다. 통산 2승째로, 작년 7월 맥클·모나



‘하이원 리조트 여자오픈’ 우승자 고지우가 트로피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KLPGA 제공> 용평 오픈 이후 1년 만의 우승이다. 우승 상금은 1억8천만원이다. 고지우는 대상 포인트 169 (137점), 상금 랭킹 14위 (3억3천537만원)에 올랐다. /연합뉴스